

새옷 갈아입는 시집 시리즈들

‘창비’ ‘문지’ 등 시의 수용폭 넓어지고 시풍도 변화

80년대 ‘시의 시대’를 주도했던 문학전문 출판사들의 <시선>시리즈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시집출판의 변화를 말해주는 지표는 <시선>들의 명멸, 우선 <청하시선> <청사민중시선> <풀빛판화시선> 등 80년대를 풍미한 시선집이 사라졌다. 출판사의 부침과 운명을 같이하기도 하고, 이념의 퇴조라는 물결에 휩쓸려 ‘미아’가 되었다.

이런 경향 중에도 한국현대시의 양대산실인 <창비시선>과 <문학과지성(이하 ‘문지’)시인선>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시의 시대’에도 연간 발행시집이 열권을 넘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15~20권을 헤아린다.

엄정한 판단으로 정선

95년 <창비시선>을 통해 나온 시집은 모두 15권.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11권이 나왔다. “좋은 시집을 정선해서 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시의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출판으로 소화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김이구 편집부장의 말이다. 젊은 시인들은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중견 시인이 모아온 작품은 예전 것보다 미흡해도 뿌리치기 어렵다고 말한다.

<창비시선>을 통한 시집출판 요청은 한달에 10여건.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창비시선>에 들게 된다. 투고된 원고는 ‘시 소위 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행본 편집위원회에서 추인이 필요하지만, 결정은 ‘시소위’에서 하는 셈. 명단 공개를 꺼릴 정도로 ‘외풍’ 없는 엄정한 판단을 자부한다. 시집출간을 가능케 하는 잣대는 ‘문학성’이다.

그런 까닭에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나 최근 나온 신현림의 《세기말 블루스》를 향한 의심스런 눈초리에도 초연하다. 새로운 시에 대한 비전을 갖춰서라기보다는 개인의 내면 들여다보기를 적절하게 이뤄낸 점을 높이 샀다는 평가다. 개인의 내면세계를 다룬 시의 수용으로 <창비시선>의 폭이 넓어진 측면도 강하다.

<문지시선>은 가장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한다. “문지가 시집을 싹쓸이 하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 지난해 20권을 펴냈고, 올해 11권 나왔다. <문지시선>에 시집출간 의뢰가 쇄도하는 배경으로 “한국시가 젊어진 데

문학출판사들의 ‘시선 시리즈’가 전환의 꼭지점에 와 있다. ‘창비’와 ‘문지’ 시선은 제2전성기를 구가한다. 시 생산량은 늘고 시집출판의 수용폭도 넓어졌다. 형식면에서 실험성이 강하고 진보적이며, 내용에서는 현대성을 추구하고 영상의 비중이 높다.

전환의 꼭지점에 와 있는 시집 시리즈들.



다, 이들의 <문지시선>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채호기 주간은 설명한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래로 문학형식면에서 진보성을 띠었고, 형식실험에 관대한 것도 문학청년을 자극하는 요소다.

그렇지만, <문지시선>의 표지장정은 실험을 기피한다. 배경이 노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변화가 없어 개개의 시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통과 권위가 있는 시리즈라서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게다가 눈에 잘 띄는 장점도 있다”고 채주간은 말한다. <문지시선> 역시 ‘뒤섞인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관건. 시적 업적을 감안하는 가운데 전통을 지키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생각이다.

90년대의 전위적·실험적인 시집들

시가 “우리 민중의 고난의 삶을 이기는 지혜의 운축으로 모아지는 것”이라는 <실천문학의 시집> 간행사는 달라진 문학풍토를 말해주는 또다른 징표다. 81년 출범한 <실천시집>은 격동의 시대와 함께하며 15년 동안 107권의 시집을 펴냈다. 초기에는 “우리의 시, 남의 시, 오늘의 시를 다잡아” 펴내다가 87년 《집시꽃 당신》이 시집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에는 교육을 주제로 한 시집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0번째 시집을 펴내기까지 얼마간 소강상태를 갖기도 했다. 올해는 전열을 재정비해 신인급 시인들을 위주로 출간이 활발하

다. “90년대 시의 위축은 시출판 전략의 부재에 원인이 있고, 한편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의 반영”이라고 이상 사장은 진단한다. 주식회사 전환을 실천문학사가 도약,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생각이다. 시집출간에 주력하는 것은 문학출판이 본령인 실천문학사로서는 당연한 수순. 신인 발굴과 중견 시인의 시작 독려를 두개의 축으로 <실천시집>을 꾸려나갈 계획인데 중견 시인쪽에 무게중심을 놓겠다고 밝혔다.

89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세계사 시인선>은 90년대 시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현대성을 추구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집이 많다”고 말하는 최승호 주간은 현대시가 음악적 요소보다는 미술과 영화의 요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통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표현주의적이거나 초현실주의적인 시풍을 보인다. 최주간은 <세계사 시인선>의 ‘색깔’을 잘 드러내주는 시집으로 이하석의 《우리 낮은 사람들》, 박순업의 《1차원 나라》, 박상순의 《마라나, 포르노 만화의 여주인공》 등을 꼽았다.

올 들어 <민음의 시>와 <숲의 시>를 통해 시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의외의 현상. <민음의 시>로는 문정희의 《남자를 위하여》가 선을 보였고, <숲의 시>(푸른숲)로는 후속 시집이 없다. “시집을 많이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게 내고 확실히 밀어주겠다”고 장은수씨는 민음사의 시집편집 방침을 말한다. <민음의 시>와는 별개로 나오는 신

작시집은 색다른 존재. 임신행의 《케니 G를 위하여》, 윤금초의 《해남 나들이》등이 그것들로 주제나 형식 면에서 <시선>에 넣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목받는 신출판사의 시집출간

《꽃들》을 통해 90년대 서정시의 전범을 제시한 <숲의 시>의 관망이 꽤 길다. 시집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마땅한 원고를 찾지 못한 것이 관망하는 이유라고 김학원 주간은 말한다. 순수시에서 창비류의 시집을 관류한 ‘무정부성’을 <숲의 시>의 특징으로 보는 김주간은 2·30대 젊은 시인의 시집출간에 주력할 생각. 연내 출간을 목표로 박철 시인의 신작시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출판사, 문학동네 같은 ‘떠오르는’ 문학출판사의 시집출판도 특기할 만하다. <숲의 시>는 김지하 시인의 시집을 그러모아 <시선>의 기초를 다졌다. 어떻게 신작시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시선>의 희비가 갈릴 듯. 시작부터 단단한 역량을 과시한 <문학동네시집>은 최근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기존의 장정이 <시선>의 성격과는 달리 화려함이 강해, 단순한 표지로 바꿨다. “특별한 성격이나 제한은 없다.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시를 정리하고, 젊은 시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문학동네시집>의 목연의 방침이라고 편집부의 김철식씨는 말한다.

—최성일 기자